

불단 펼치니 스무 칸 신령한 병풍이...

그 절집의 빛

②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

불단장엄의 중의적인 상징세계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러는 <상징형식의 철학>에서 “인간은 물리적 우주에 아니라 상징의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시러에 의하면 언어와 신화와 예술, 종교는 상징우주를 이루는 부분들이다. 나아가 인간의 모든 문화적인 행위도 바로 상징을 형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종교장엄, 특히 불교미술은 카시러의 표현에 설득력의 무게를 실어준다.

불교의 가르침은 위나 방대하고 심오하고 미묘해서 언어의 표현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언어의 표현이 끊긴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깊이를 갖추고 있다. 심오한 철학적 세계에 감각적 의장(衣裝)을 입혀서 보이고 느낄 수 있게 가시적인 형태를 취한 것, 그것이 불교 조형미술세계다. 즉 불교미술은 본질에 상징의 옷을 입힌 현상적 구상에 가깝다. 그런데 상징은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의적(重義的)이며 다의적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관용력을 품고 있다. 예컨대 불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 조형은 신령한 우주적 기운일 수도 있고, 도량을 수호하는 벽사의 표현일 수 있으며, 물을 상징하는 생명력의 근본일 수도 있고, 불보살의 변화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통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징 코드의 다른 아이콘으로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전 조형미술 중에서 불단 장엄세계만큼 다채롭고 중의적인 상징체계를 갖춘 것은 드물 듯 하다. 불단은 불상을 모시는 연화좌의 좌대 이면서 차, 향, 등, 꽃, 과일 등의 육법공양을 올리는 불탁의 확장시설이 하나로 통합된 한국 특유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다보니 불단의 긴 화면에 인간의 현세기복적 발원과 종교적 극락정토, 불보살의 거룩한 행적 등을 폭넓게 장엄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불단장엄의 소재는 시공이 갖는 양변의 경계를 여의어서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이다. 현실적이면서 또 관념적이다.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통도사 대웅전, 직지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불단장엄 등은 관념과 현실이 혼재한 카오스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불단장엄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처럼 삶과 종교, 전생, 신화적 요소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판타지세계를 펼쳐 놓기도 하는 것이다.

세로 틀에 배치한 표구작품 같은 화면

팔공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은 그런 보편적인 특성에도 칸칸이 화폭의 성격을 가진 회화적인 독자성으로 인해 주목을 끈다. 다른 불단장엄이 가로 지향의 화면이라면, 환성사 대웅전의 불단은 세로 지향적이어서 저만의 고유한 독자성을 가진다. 또한 화면 한 칸의 크기가 한 화면의 독립성을 일정하게 보장할 만큼 충분히 크다. 칸칸이 안감을 대고 배접 손길로 마무리된 표구작품 같다.



불단 좌우 측면에 각각 4폭씩 배분 장면. 연결하면 8폭의 민화병풍에 손색없다. 사각형의 세계를 들고 있거나 오색의 빛이 흐르는 보주를 공양헌공하는 나찰이 인상적이고, 기단부의 두팔 뽀얀 용의 자세에서 익살과 해학이 넘친다.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판타지세계

인격화 된 동식물들의 이슬우화 장면

사슴, 오리, 앵무새 등은 부처님 전생

보주를 쟁반에 담아 이고 가는 나찰

화면의 칸 수는 총 20칸이다. 좌우에 각각 4칸씩, 전면엔 12칸을 경영해서 스물 칸이다. 펼쳐면 외경의 공양과 신령, 우화의 세계가 과노라마를 이루는 장대한 20첩 병풍이다. 한 칸 한 칸이 인격화 된 동식물들의 이슬우화 장면 같고, 흥미진진한 천일야화(千一夜話)의 스텝컷으로 다가온다.

전면 12칸 화면에 펼쳐진 세계는 생명과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 숲의 세계다. 화폭 칸칸은 유아한 반지름을 갖춘 후, 조형화면의 청관을 덧댄 형식이다. 붕긋긋한 반지름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독립된 반지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저마다 화면이 갖춘 독자적인 사연을 시사한다. 한 칸 한 칸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까닭이다. 틀 좌우로 오색의 빛을 지닌 생명력의 새싹 쪽이 뻗어 화면공간에 신성의 힘을 불어 넣는다. 마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그 오색의 촉을 따라 들려주는 듯한 미묘한 모티프다. 붉은 기운이 도는 촉은 본질적으로 인과의 연기법을 강하게 암시하며, 부처님이 갖추신 자비의 본원력을 상징하는 심벌에 가깝다. 단순함 속에 고귀함을 담고 있다.

전면 12칸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

12칸 모두의 무대는 초록의 푸르름이 넘치는 숲 속 나무다. 생명의 숲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무수히 쌓아온 자비의 선근과 공덕의 우화가 풀 어진다. 화면에 등장하는 우화의 주체는 모두 동물이다. 물론 가뭇바늘을 연상케 하는 날개 갖춘 사람형상도 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주제들은 코끼리, 말, 원숭이, 사슴, 오리, 공작, 앵무새 등의 동물로 보이는데, 그 동물들은 <자타카>, 즉 <본생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전생의 몸이다. <본생

경>에서 부처님은 때론 원숭이, 토끼, 사슴, 코끼리였고, 때로는 비둘기나 공작새, 앵무새였으며, 나무신, 혹은 용이 되기도 하셨다. 그 동물들의 몸을 빌려 ‘앵무새의 숲’, ‘왕을 깨우친 원숭이’, ‘황금빛 공작’, ‘행운을 불러오는 명마’ 등의 주인공이 되어 장래의 세존이 되시는 선근을 쌓고 지혜를 발휘하셨다.

화면의 공통적인 무대인 푸르름의 숲은 <본생경> 429편에 등장하는 ‘앵무새의 숲’을 모티프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갠지스강 언덕의 우담바라 숲에 살고 있던 앵무새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 숲이 가뭇에 매마르거나 시들어도 자신들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먹을 열매도 없는데 말이지. 그를 가사히 여긴 제석천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숲을 떠나지 않는가? 앵무새의 왕이 말했다. 이 나무는 우리들의 벗이며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진실한 사이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어찌 이 숲을 떠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앵무새의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시라고 <본생경>은 전한다. 부처님도 영원히 우리 중생 곁에 머무심을 일깨운다. 화면 저마다가 <이슬우화>처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칸의 화면 속에 부처님의 오래된 인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화 포스터의 스틸컷 한 컷 속에 스토리 전체를 담고 있는 이치다. 이 점이 환성사 대웅전 불단이 지닌 불교미술사적인 중요한 가치다.

좌우 측면 8칸엔 세세생생의 공양

그런데 그 형식적 틀은 조선 후기의 민화를 전



전면 12폭 중 향좌측의 4폭. <본생경>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면 12폭 중 향우측의 4폭. 코끼리, 원숭이, 공작 등은 부처님 전생의 몸이다.

개한 방식과 흡사하다. 전면은 12폭 병풍이고, 좌우 측면은 합해서 8폭 병풍양식을 취했다. 한 칸은 몸통부의 화면과 기단부의 용틀임, 혹은 용의 정면 얼굴로 구성된 2단 형식의 면분할 구조다. ‘호제충신예의염치’를 담은 제주 문자도(文字圖)의 3단 구성에서 윗단이 없는 형태다.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연속적이고 통합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좌우대칭의 안정적인 구도를 경영하고 있으나 세부의 묘사는 좌우비대칭으로 펼쳐지고 확장했다.

전면의 12폭이 <본생경>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좌우 측면을 합한 8폭 병풍은 보주, 꽃 등 불전에 올리는 세세생생의 공양헌공(供養獻供)을 주요한 소재로 삼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은 귀갑을 두른 직립보행의 두 나찰이 신령한 오색기운이 흐르는 보주를 쟁반에 담아 이고 가는 대목이다. 이토록 신비한 장면은 일본 대덕사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등에서 간혹 접하던 제재다. 또 그 옆의 화면은 조선 후기 민화의 어해도(魚鱈圖) 속에 나올 법한 물고기 도상이다. 고려불화에 흐르는 전통의 면면과 당대의 민화화풍을 동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반갑고도 놀랍다.

기단부엔 용들의 졸업앨범 보는 듯

불단의 기단부 처리에서도 장인의 예술가적 창조정신은 멈추지 않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기단부는 용의 세계로 잠입했다. 전면부는 보주를 움켜쥐려 용틀임하는 여섯 용의 측면부 좌우대칭으로 경영했다. 그에 비해 좌우 측면부의 칸간에는 용의 정면 얼굴을 베풀었다. 그런 발상은 이웃

해 있는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의 불단 기단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백흥암 기단부의 용 얼굴이 하나의 전형에 충실한 고전주의적 묘사라면, 환성사 불단의 용은 무척이나 창의적이며 낭만적인 경향이다. 입에 물고 있는 지물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연꽃가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주 기운을 비롯해서 새끼줄처럼 배배끈 붉은 줄기세포의 새싹, 부처님 제의 범구인 금강삼고(三杵)까지 발상이 대단히 기발해서 신선하다. 특히 사람처럼 두 팔로 생명의 붉은 꽃망울 가지를 휘어잡고 있는 조형 앞에선 웃음을 참을 수 없다. 그 모습이 마치 팔굽혀펴기 하는 트레닝 자세를 닮아 입을 가리고 웃을만 하다. 표정도 제각각이다. 어떤 용은 카리스마 넘치고, 성깔 있어 보이는가 하면, 다른 용은 어리숙하며 맹하여서 마치 용들의 졸업앨범을 ‘쿠쿠’ 거리며 들춰보는 느낌이다.

불상의 조상(造像)에선 32상 80종호라는 규범이 있어 대체로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 불단, 단집, 천정, 꽃살문 등의 조형에선 조영의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목장, 혹은 예술가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펼쳐지곤 한다. 민화의 시대성과 발맞춰 환성사 불단은 한 시대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재해석 했다. 형식에서도, 내용에서도 소목장 장인의 창조적 정신이 송고한 승화를 이룩한 예술적 성과라 하겠는데, 그 역시 들도 없는 그 절집의 빛이다.



노재혁(불교미술 사진작가)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소상공배심천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범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소장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